

특집논문

감정구조와 촛불혁명*
: 2008년과 2016년

홍성민(동아대 정치외교학과)

본 논문은 오늘날 2016년 진행된 촛불혁명의 동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감정구조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그것의 적용가능성을 다양한 이론적 기반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한다. 이것을 토대로 향후 한국정치의 특성을 문화론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즉 2008년 촛불집회와 2016년의 촛불을 비교하려고 한다. 2008년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한국사회에는 정치운동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으며, 2016년의 촛불은 감정정치학의 일반모형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본 논문에서 감정정치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았다.

핵심어: 민주화 이행론, 촛불집회, 감정구조, 정동, 문화정치

1. 들어가며

필자는 2016년 한국정치의 특성을 파악하고, 한국에서 실질적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필자는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 파동과 2016년의 촛불혁명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전자는 80년대의 정치운동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띠는 사건으로서, 이를 계기로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생활정치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즉 2008년의 광우병 파동은 운동의 주체, 저항의 성격, 투쟁의 양상 등이 80년대와는 전혀 달랐고, 그래서

* 이 글은 2017년 동아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현대 한국정치의 특성을 규정해주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 한편, 2016년 촛불혁명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2008년의 촛불이 목표로 했던 정치혁명을 완수했다고 평가해 볼만하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을 비교함으로써 과거와는 다른 현대 한국정치의 특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정치가 2000년대 이후 질적으로 크게 달라졌다는 진단이 있어 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는 이처럼 질적으로 변화된 한국정치의 특성을 감정구조라는 개념을 통해서 분석할 것이고, 일반적 형태를 감정정치학의 일반모델로 완성해 보려고 한다.¹⁾

사실 2008년의 촛불이나 2016년의 촛불이 80년대 6월항쟁과 완전히 다른 형식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주체, 운동형식에 있어서 80년대와는 다른 양상을 갖는다. 또 이론의 초점도 현재와는 달랐다.³⁾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외국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
- 1) 이 글은 기본적으로 ‘이론적 검토와 이론적 모델 만들기’에 목표를 둔 논문이다. 이를 위해서 필자는 헤겔과 딜타이가 강조했던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의 핵심적 사유체계, 즉 직관(intuition)에 근거하여 이 글을 작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글은 자료를 고증하는 역사학의 논문이 아니며, 사회변동의 인과관계를 구명하는 계량적 논문이 아니다. 직관을 통해서 나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이것을 토대로 한국현실을 처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튀세는 이론적 실천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 2) 이점에 대해서는 김성일(2017)을 참고하라. 한편 2008년 촛불은 집회이고, 2016년을 혁명으로 명명하는 것에도 의의가 있을 수 있겠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2008년의 촛불은 한국에서 사회운동의 질적변화를 알린 신호탄이고 2016년은 정권교체를 이룬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각각 촛불집회와 촛불혁명으로 불러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은 2008년과 2016년의 운동의 차이점을 비교하기 보다는 감정이라는 변수가 한국사회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론적인 수준에서 탐구하는 것이 목표이다.
 - 3) 예를 들어 80년대 한국정치운동을 분석하는 학문적 흐름들은 대체로 민주화이론이었다. 민주화 이행론의 이론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필자의 시각에는 두 가지로 유형분류가 가능하다. 첫째는 구조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서구에서는 오도넬과 슈미터(O'donnell & Schmitter 1986), 한국에서는 조희연(1998)과 윤상철(1997)이 대표적 학자이다. 둘째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나는 전자를 국가·시민사회 모델이라고 하고, 후자를 의미론의 모델이라고 이름붙이겠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의미론의 모델, 라캉(Lacan)의 담론적 주체모델, 학생운동의 감정모델 등이 있다. 그런데 각

국내학계에서도 시민운동을 새롭게 바라보는 이론적 흐름이 득세하였고, 이것이 한국사회에서는 2008년에 크게 폭발한다. 이 당시에 게재된 이론적 특성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학문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16년 촛불혁명을 맞이하여 과거의 이론 틀을 정리하고 이것을 토대로 감정정치학이라는 모델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필자가 감정구조라는 용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행위자들의 감정적 요인(분노, 수치심, 등등)들이 사회적 참여의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이러한 감정요인이 개인수준을 넘어서 집단감정, 집단적 연대로 승화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반드시 이론적인 정합성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 차라리 이것은 한국사회가 감정구조라는 개념을 요구할 만큼 사회성격이 크게 변화했다는 자가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여기서 거론하는 감정이란 사회구조의 모순을 반영하는 집단적 감정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감정이 발생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다양한 사회분파들 간의 연대가 가능해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민주화 이론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인식론에 근거한다. 예컨대 과거에는 부패한 권력에 대하여 저항세력이 일사분란하게 단결하였기에 저항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지만, 오늘날에는 저항의 집결이 옳고 그름을 인식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현실에서 요구하는 집단행동모델은 인지적 수준을 넘어서는 감정의 요인을 포섭해야 한다.⁴⁾

각의 모델이 구조-행위라는 정치요소의 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80년대 민주화 이행론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의 한계이다.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정치운동이란 시대의 구조적인 요인과 더불어 개인들의 행위동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구조-행위라는 양자를 변증법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이론적 과제로 남아 있다. 필자가 여기서 제시하는 감정구조라는 개념은 구조-행위를 통합하려는 이론적 시도라고 볼 수 있다. 한편 80년대 사회운동론의 이론적 한계를 지적한 논문으로는 홍성민(2016)을 참조하라.

2. 2008년의 광우병파동과 집합행동모델

87년 이후에 한국사회의 운동이 분화되고 다양화되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던 정치운동과 차별지어, 환경, 여성, 인권, 평화 등을 요구한 움직임에 사회적 운동이라고 이름붙이고, 그 특수성을 연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민주화 이전의 사회운동이 외부억압에 대한 저항에 목표를 두었다면,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은 시민들 간의 정의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정태석 2015, 39). 또 과거의 정치운동이 계급중심이었다면, 새로운 사회운동은 시장이나 소비 따위를 둘러싼 권익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기존의 계급을 넘어선 새로운 정체성을 지향한다. 여기서 ‘사회적인 것’, ‘새로운 정체성’의 개념들은 80년대 투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기층민중, 노동자, 학생 등과는 분명히 차별화된다. 이것은 새로운 운동주체세력이 현재 한국사회의 시민운동을 이끌어 간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를 점검하고 한국

4) 물론 감정적인 요인이 80년대 정치저항에서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때에도 저항 세력을 추동했던 것은 불의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었다. 그러나 이론화의 수준에서는 감정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80년대는 차라리 “돌출적 상황”이라는 요인이 작동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즉 다양한 사회적 분파들이 집합과정을 통해서 연대가 이루어지다가, 돌출적 상황을 계기로 저항의 힘이 집단적 에너지로 응축되었고, 이것이 권위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요인을 근거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면, 86년의 건대항쟁은 구조행위를 연결하는 감정폭발의 중요한 계기이며, 이것이 87년의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민주화를 이루어 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건국대 항쟁은 학생운동이 사회적 저항운동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촉매제 역할을 한 “돌출적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연대와 폭발은 오늘날 한국정치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해석은 지금까지 학계의 흐름을 두고 볼 때 많은 논란을 불러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면서 감정구조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80년대 형식적 민주화 이행의 시절에도, 또 오늘날의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감정구조라는 개념이 한국정치의 특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을 점검해 보니, 2008년의 이 사건을 한국정치사에서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계기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신진욱(2008)의 글은 한국정치사에서 광우병 사태가 갖는 의미를 가장 잘 요약한다. 그는 2008년의 사건은 87년 민주화 항쟁이후 20년 만에 이루어진 시민사회의 빅뱅이라고 평가한다(신진욱 2008, 106).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의 특징을 5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운동의 주체가 다양해 졌다. 성별, 연령, 직업 등에서 동질적이지 않은 무형의 시민이 정치적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둘째 인터넷 공론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셋째 안전과 생명이라는 주제가 정치권에 진입했다. 그리고 시민적 연대의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다. 넷째 시장의 공공성이라는 주제가 등장했다. 다섯째 참여 방식과 행동양식에서 자율적이고 무정형적 속성을 띠는 사회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2008 광우병 파동이 새로운 역사의 주기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규정한다. 신진욱은 이러한 특성을 갖는 사건이 시민들의 감정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일회성으로 중단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운동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인지를 자문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 했다(신진욱 2008, 120).

이러한 진단에 모두 다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필자는 2008년 광우병 파동과 촛불집회가 80년대의 정치운동과 사뭇 다른 양상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성격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과거와 다른 정치운동의 성격을 파악하려 한다. 그리고 나면 2016년 촛불의 특수성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필자는 기대한다.

1) 광우병 파동과 촛불집회의 진단

우선 2008년 광우병 파동의 원인을 분석하는 논문들은 다양하다.⁵⁾ 그 중에서 나는 촛불집회를 감정의 개념과 연결지우고 있는 박형신과 정수남(2015)의 글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⁶⁾ 우선 여기서 두 사람은 촛불시위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정당정치의 부재와 탈물질적 가치로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을 비판한다. 그리고 전자와 후자를 각각 이성과 감정, 구조와 행위의 양자로 설정하면서 이 두 가지 고리를 연결해 주는 개념을 찾는 것이 2008년 촛불집회의 특성을 찾는 길이라고 주장한다(2015, 353). 특히 배후감정이라는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가는 것으로 보여 매우 흥미롭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은 촛불집회가 확산된 진정한 원인이 모성감정이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자식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주부들의 불안감이 배후에 있었고, 이것이 위험한 먹거리를 먹지 않을 권리를 무시당한 국민의 분노로 확산되어 촛불집회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깔려 있는 정서가 바로 모성감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모성감정이 분노라는 사회적 감정으로 폭발하게 만든 촉발요인을 공포감정이라고 제시한다. 박형신과 정수남에 따르면 공포감정이 2008년 이후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먹을거리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부자 되기 열풍, 노동자들의 경쟁공포, 노숙자들에 대한

⁵⁾ 예를 들어 대의제 민주주의 실패가 촛불집회를 촉발시켰다고 파악하는 논문이 있고(최장집 2008), 탈물질적 가치가 한국정치의 중심으로 진입하여 촛불집회가 확산되었다고 파악하는 논문이 있으며(김호기 2008), 여성들이 새로운 운동의 주체로 자리 잡아 촛불집회가 확산되었다고 파악하는 논문이 있기도 하다(권지희 2008).

⁶⁾ 감정의 문제를 정치학에 도입한 외국번역서가 있기는 하다(Westen 2007; Moisi 2010; 吉田 徹 2015) 그러나 감정의 문제를 국내 상황에 적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연구한 분야는 사회학이다. 그중에서도 박형신과 정수남의 업적(2015)이 가장 포괄적이고 탁월하다. 따라서 일단 사회학에서 이루어진 감정연구를 비판적으로 독해한 후 이것을 정치학 분야에서 새롭게 응용해 보자는 것이 필자의 전략이다.

무관심, 복지국가에 대한 감정적 토대에 모두 공포라는 감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여기서 두 사람이 지적인 모성감정, 공포감정에 대한 서술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개인감정에서 사회적 감정으로 이행하는 분석들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싶다. 그래서 필자는 모성이라는 개인의 감정을 1차감정이라고 명명하고, 이것이 배후감정을 거쳐서 사회적 감정(2차감정)으로 분출한다는 도식을 과감하게 제안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이론적 상상력은 차후 보다 엄밀한 실증연구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마땅하나, 일단은 이론적 가설로 제안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로 이러한 제안을 좀 더 이론적으로 풍부하게 설명한다면 감정정치학의 일반모델로 확장시켜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기대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선행연구를 더 검토해 보고, 필자의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자.

우선 감정연구의 기존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자의 논지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⁷⁾ 첫째는 감정의 근원을 개인에 두고 자아형성과 행위 결정에 관련하는 감정의 요인들을 찾아내는 심리학주의 방식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작업이 일루즈(Illouz 2008)가 대표적이고, 정치적 결정방식에 주목한 뉴먼(Newman 2007)의 작업도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감정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방식이다. 여기서 감정은 사회와 개인의 마주침에서 만들어지는 상징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또는 상징체계를 공유한 사회성원들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는 문화적 의미체계가 바로 감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기본적으로 고프만(Goffman 1967)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회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부분의 미국학자들, 예를

⁷⁾ 이러한 분류는 박형신과 정수남(2015)에서 시사 받아 정리한다.

들어 콜린스(Collins 2009), 호실드(Hochschild 1983), 야스퍼(Jasper 1998), 캠퍼(Kemper 1978), 슈프(Scheff 1990) 등은 모두 고프만(1967)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감정연구에 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는 거시사회학의 접근방식이다. 여기서 감정은 사회적 결과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감정이 사회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가 되어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게 된다. 바바렛(Barbalet 2007)의 작업이 대표적이며, 정수남과 박형신 스스로가 자신들의 연구가 이 분야에 속한다고 밝히고 있다. 역사적 맥락에서 사회적 행위자들을 집합적으로 동원하는 과정에 감정의 역할을 분석하는 것이 거시사회학의 핵심이다(박형신·정수남 2015).⁸⁾

한편 2008년 상황에 주목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한국사회를 탈감정의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감정과 집합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이 있어 필자의 주목을 끈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필자가 해결하려는 목표가 민주화와 관련된 집합행동모형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엄묘섭의 작업(2003; 2009)은 감정과 집합행동을 직접 연결시키고 있어서, 필자의 의도에 그대로 부합하고 있다. 우선 그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탈근대라는 개념으로 요약한다. 예를 들어 하이퍼시뮬레이션(hypersimulation), 매스 미디어에 의한 흥내 내기, 문화의 과잉생산과 상품화 등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다. 근대와 달리 탈근대 사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정치적 투쟁의 의미를 함축한다(2003, 376). 탈근대의 정체성 이론에 기대어 보면 집합적 정체성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집합적 행동이 가능하게 된다. 즉 나와 다른 우리라는 관념이 역할기능으로 결정되지 않고 상징적 투쟁과 감정적 연결망으로 형성된다는 것이 탈

⁸⁾ 두 사람은 자신의 작업이 바바렛을 넘어서는 장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바바렛이 그동안 모호하게 남겨두었던 이성과 감정의 관계, 감정과 사회구조의 관계, 감정과 계급의 관계, 개인들의 아비투스(habitus)와 사회적 위치 등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박형신·정수남, 2015).

근대의 새로운 코드이다(Melucci 1996). 직업, 가족, 계급과 같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했던 근대사회와는 달리 오늘날의 사회는 개인정체성 자체가 상징과 권력에 의해서 조작되는 만큼 집합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언제나 불투명하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엄묘섭이 집합적 정체성이란 장시간에 걸친 학습과 내면화로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집합적 동일시 과정이 개입한다고 말한 점이다. 그는 계속해서 개인의 감정상태가 대행자 의식(sense of agency)을 거쳐서 집합적 정체성으로 확산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집합행동으로 표출되며, 인지된 위협의 정도에 따라서 집합적 정체성이 혁명적, 개혁적, 제도적 사회운동으로 달리 표출된다고 설명한다(엄묘섭 2003, 377-379). 한편 몇 년 지난 후 엄묘섭(2009)은 바바렛이 제시한 수치심의 모델을 정교하게 분석하면서 개인들 차원에서 만들어진 수치심과 분노의 연쇄반응이 어떻게 집합행동으로 연결되는지를 자문하고 있다. 이것은 감정정치학의 일반모형을 만들어 보려는 필자의 목표에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준다.

2) 감정정치학의 구성요소

이제 감정정치학의 일반모형을 개략적으로 구상해 보자. 나는 박형신과 정수남 그리고 엄묘섭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난 후 일반모형이 내포해야할 구성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감정의 정치학 모델은 이성의 역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이성은 1차감정의 형성과정에서 개인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며, 이때 인지적 성격으로 작동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지적 수용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개인이 기존의 규범체계에서 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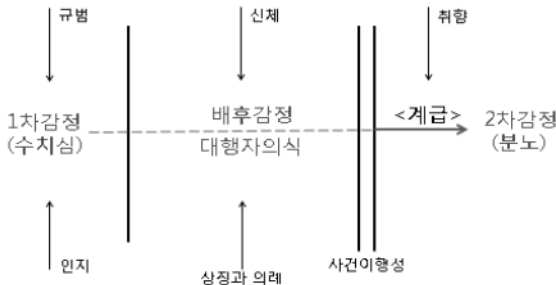
어나는 사회현상을 경험하게 될 때 1차적 감정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감정이 정지된 수동 상태라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능동적 행동이다. 여기서 필자는 1차 감정을 수치심으로 2차 감정을 분노라는 감정으로 대표하고자 한다. 그런데 감정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계기에 습관이 작동한다. 그리고 습관은 계급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학문적인 상식이다. 물론 계급이라는 개념을 감정의 표출에 응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급개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인지적 요인(cognitive factor), 감성적 요인(emotional factor), 습관(habit) 이라는 세 가지가 감정정치학의 일반모델이 포함해야 하는 구성 요소들이다.⁹⁾

둘째, 감정의 역할은 내면화 과정과 외면화 과정으로 분리되어 설명되어야 한다. 주로 전자는 개인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1차 감정(개인 감정)에 해당하며, 후자는 집합행동으로 표출되는 2차 감정(사회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차 감정이 2차 감정으로 상승되는 과정에 나는 중간지대를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배후감정 혹은 대행자 의식이 중간매개자로 작동한다. 그리고 배후감정이나 대행자 의식은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거나, 조작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권력의 흐름에서 작용하는 상징체계와 의례가 중요하다. 한편 권력의 효과는 인간의 신체를 관통하며, 이러한 과정은 습관이라는 형태로 신체에 각인된다.

셋째, 집단정체성과 감정의 사회적 표출은 계급적인 수준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단적 행동은 물질적 토대와 관련되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정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계기는 돌발적인“사건 이행성”을 갖는데,

⁹⁾ 인간행동을 이와 같이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Baldwin(1998)에서 시사 받은 것이다.

이것은 예측되거나 사후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우발성에 학문적 규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계급개념으로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계급행동은 취향이라는 변수로 분석되는 것이 유용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감정정치학의 일반모델>

3. 2016년 촛불혁명의 이론적 모형

위에서 선언적으로 거론한 내용을 이제 이론적으로 엄밀하게 분석해 들어가자. 이러한 과정이 끝난 후 우리는 2016년에 발생한 촛불혁명의 흐름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 1차 감정과 2차 감정의 형성에 대해서 논의하자. 나는 여기서 바바렛(2007)과 너스바움(Nussbaum 2016)을 주요한 텍스트로 선정하고, 수치심과 분노를 각각 1차감정과 2차 감정으로 분석해 볼까 한다. 바바렛은 자신의 저서에서 감정의 거시사회학이 해명해야 할 요인들을 설명하면서, 그 대상을 계급, 수치심, 분노, 공포 등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너스바움은 자유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감정으

로 수치심과 분노를 거론한다. 사회구조적 수준에서 감정의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두 학자가 자신의 텍스트에서 수치심과 분노를 공통적으로 설명했는데, 필자는 이것을 과감하게 1차 감정과 2차 감정으로 선정해 보려는 것이다. 과연 가능한가?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필자의 시도가 인정될 수 있을지 논증해 보자.

1) 우선 너스바움은 수치심이 우리에게 진리를 들려주는 감정이며, 분노는 부당함을 바로잡으려는 감정이라고 말한다(Nussbaum 2016, 378-379). 그러면서 수치심을 느끼는 상태란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이상과 불일치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감정상태이다 (388). 또 수치심은 계급적 차별과 인간의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며(390), 사회적으로 규정된 ‘정상적인 것’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398). 그러면서 과연 ‘생산적인 수치심’과 ‘위험한 수치심’을 구분할 수 있는가를 자문하고 있다(387). 이러한 질문에 바바렛의 텍스트를 통해서 대답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바바렛은 외적경험/내적결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감정/타인에 대한 감정이라는 기준표를 바탕으로 수치심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상황적 수치심, 공격적 수치심, 나르시즘적 수치심, 방어적 수치심(Barbalet 2007: 2009)이다. 필자의 판단에 따르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방어적 수치심만이 사회의 조정체계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 왜냐하면 다른 유형의 수치심은 사회적 순응이나 복종, 혹은 타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너스바움이 거론한 생산적인 감정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2) 그렇다면 방어적 수치심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바바렛은 사실 수치심이라는 감정의 개념 일반을 서술했지만, 특정한 수치심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바바렛은 수치심의 역사를 고전텍스트에서 발췌해 가면서 설명하는데, 이 부분을 필자 나름대로 재해석하면서 방어적 수치심이 등장

하는 계기를 이해해 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도 설명하도록 하겠다. 바바렛이 적어놓은 텍스트의 내용에 따르면 수치심은 환경에 대한 반응이다(196). 수치심은 주로 순응에 관련된 감정인데, 행위자와 자아가 맺는 관계를 포함한다. 그런데 오늘날 수치심이 감퇴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아형성경험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201). 다시 말해 근대적 자아가 고립되어 감에 따라서 자아의 사회적 형성이 파편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날의 자아형성 과정을 왜곡시키는 사회적 변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건전한 수치심의 생성조건을 이해하는 관건이다. 한편, 형식논리상 1차감정이 형성되어야 2차감정이 발생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1차감정의 발생은 자아형성의 문제와 깊숙이 관련된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학문적 관심은 자아형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필자가 위에서 선언한 항목 중에서 두 번째 내용에 관련되는 것들이다. 그러니 이제 두 번째 항목을 논의해보도록 하자.

B. 건전한 수치심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질문은 자아형성의 조건을 질문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대의 상징체계와 의례와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배후감정과 대행자 의식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결국 건전한 수치심의 발현과장이 바로 배후감정 내지는 대행자 의식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박형신과 정수남은 모정과 같이 인간이 고유하게 간직한 생물학적 감정을 배후감정이라고 생각한 듯 하며, 엄묘섭의 경우에는 대행자 의식이 마치 초월적인 형이상학이라고 간주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주의와 초월주의는 감정연구를 사회적 맥락에서 연구하는데 인식론적으로 방해가 될 뿐이다. 나는 여기서 세가지 작업을 간략히 점검할 것이다. 1) 건전한 수치심의 형성이 푸코적인 의미에서 자아형성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2) 이것이 뒤르케임적인 상징체계와 의례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논증할 것이다. 3) 이것이 탈감정사회라고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왜곡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1) 필자는 과감하게 푸코의 신체란 결국 수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체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다. 왜냐하면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유순한 신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수치심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대체로 푸코는 <성의 역사> 2권, 3권에서는 주체화의 양식을 "통치성"이나 "자아에 대한 배려"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한다. 과거와 달리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래서 주체화의 양식을 행동의 코드와 주체화의 형태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한다. 전자는 행위규칙들로서 구조적인 요인에 해당하며, 후자는 인간관계에서 등장하는 심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심리적인 주체화가 완성된다는 점을 푸코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분명 구조적인 속성만을 강조했던 『감시와 처벌』이나 『성의 역사1』과는 인식의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

(2) 뒤르케임이 제시한 의례의 기능을 살펴보자. 뒤르케임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감정이 어떻게 사회적 관행에서 발생하는지를 연구했다. 그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이다. 이 책에서 뒤르케임은 종교적 관념이 일정한 상징과 의례를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밝혔다. 나아가 집단의 소속감과 도덕감정도 상징과 의례를 통해서 규정된다(Collins, 2009, 43). 이러한 소속감과 도덕 감정을 유지

10) 물론 푸코는 자신의 저작에서 수치심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없다. 다만 푸코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엘리야스(Elias)의 연구(Elias 1996)를 역으로 추측해 보면, 어떻게 국가권력이 개인의 수치심을 조작하여 권력에 복종하도록 만들었는가를 알 수 있다. 적어도 엘리야스가 지적한 사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문제의 해답이 보인다. 엘리야스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작은 행동들이 모두 국가권력의 통제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이 바로 문명화 과정인데, 이때 수치심은 권력이 대상으로 삼은 가장 중요한 감정이었다.

하는 기능이 상징과 의례라고 한다면,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감정의 변화과정(수치심에서 분노로의 이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현대사회의 상징과 의례가 무엇인지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생긴다. 사회운동론에서 보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계급적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Collins 2014, 1장 참조). 그런데 뒤르케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갈등의 발생은 의례를 기반으로 하는 집단감정의 변화에서 유래한다. 다시 말해 갈등의 발화점에는 언제나 상징과 의례가 작동하며, 사회적 감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Collins 2009, 80).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수치심은 사회적 의례가 만들어 낸 도덕 감정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한편 분노는 사회제도의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졌을 때, 또는 새로운 도덕 감정이 필요할 때, 터져 나오는 집단감정이라고 하겠다.

(3) 이러한 사회적 의례가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메스트로비치(Metrovic 2014)는 문화산업으로 인해 감정의 진정성이 살아진 상황을 두고 탈감정사회라고 한다. 여기서 그가 강조한 것은 감정이 사라진 겹다는 사실이 아니라 대량생산되고, 기계화된 감정의 특성이다(2014, 65). 거리에는 많은 동정심이 넘쳐나지만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동정심이다. 루소가 생각했던 동정심과 연민은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 낸 기초감정이었다면, 오늘날의 동정심과 연민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감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현대 자본주의 체제와 관련이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감정을 상업화의 대상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이다. 생일, 결혼식, 기념일 등에 나타난 감정을 공장의 표준화된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Metrovic 2014, 113). 메스트로비치는 이것을 진정성의 산업이라고 이름 붙였다. 디즈니랜드문화, 사회의 맥도날드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현대의 의례이며 그들이 만들어 내는 상징체계들이 집단감정을 만들어 낸다.

문화를 상업화하는 것은 거대자본이지만, 진정성을 산업화한 것은 게릴라적인 속성을 띠는 시민단체들이다. 물론 이들이 국가권력이나 재벌로부터 암묵적인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에서 인터넷을 바탕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들은 그 형태를 규정할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변형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혐오, 질투, 분노의 감정은 과거 독점자본의 상업성과 파괴력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오늘날 한국정치는 이들이 만들어낸 혐오와 적대의식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 계급적 취향의 형성과 감정의 사회적 표출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바바렛은 자신의 저서에서 계급과 분노의 관계를 탐구했지만(2007, 3장), 계급과 분노는 애초부터 잘 어울리지 않는 주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학문분류에서 보면 계급은 거시사회학에서 다루는 주제이고, 분노는 사회심리학에서 다루는 주제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감정사회학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계급행동이 분노로 표현되는 계기에 감정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인정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분노로 표출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로 불평등에 대한 분노이다. 그리고 바바렛은 경기순환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거론한다. 즉 실질소득의 증가와 감소, 그에 대한 전망이 계급 분노가 표출되는 원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논리라면 감정의 이슈를 제기했지만 바바렛의 설명은 여전히 경제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1) 바바렛이 분노의 표출과 문화적 요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11) 이태리의 사회학자 멜루치(Melucci 1996)가 정보사회에 진입한 서구에서 집합행동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를 연구한 바 있다. 그는 노동자 계급이라는 경제적 관점을 넘어서 정치운동의 새로운 주체를 분석했다. 그는 정체성의 정치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득권 세력과 사회운동세력의 투쟁대상이 상징적 형태를 띠고 있으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집합행동의 관건이라고 진단한다. 멜루치의 연구는 오

대체로 계급분노는 경제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대중에 대한 고전부터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르봉(Le Bon)의 『군중심리』(Le Bon 2005)와 타르드(Tarde)의 『여론과 군중』(Tarde 2012)을 비교해 보자. 이 두 책은 모두 근세기 초에 발표되었으며 현대의 집단행동에 커다란 함의를 주는 고전이다. 우선 르봉은 군중들의 심리에 기초해서 집단행동을 설명한다. 반면 타르드는 인쇄매체를 매개로 형성되는 공중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두 사람 모두 감정이 개입된 집단행동을 설명하는데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다. 르봉의 경우는 집단정체성이 일시적이고 즉흥적이어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며, 타르드의 경우는 여론의 형성에서 이성적 인지모델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요소를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토 마모루(伊藤 守)는 타르드의 공중개념을 정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현대 상황에 맞게 변형시킨다(2016). 정동에 대한 이토 마모루의 의견에 따르면 필자가 구축하고 있는 감정정치학의 일반모델에 타르드를 접목시킬 근거가 생긴다.¹²⁾ 수치심이 분노감정으로 표출되는 순간에 집합행동이 나타

늘날 한국정치의 특성을 이해하고 집합행동이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계기가 무엇인지를 사고하는데 많은 함의를 준다. 한편 한국에서도 계급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1990년대 초에 이미 새로운 개혁세력으로 부상한 중산층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한완상(1991)과 한상진(1994)은 중간계급 혹은 중민이라는 대상을 두고 이들이 개혁적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자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노동자 중심주의, 경제 중심주의를 넘어서지 못했다. 따라서 계급행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경제를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상진과 한완상의 논쟁은 사실 중산층을 경제적 위치에서 바라보고 그들에게 나타난 행동특성을 포착하려는 시도였다. 다시말해 계급행동의 정지된 모습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집단감정이 집단행동으로 발전되는 계기는 무엇이고, 이때 계급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밝혀야만 한다. 다시 말해 정치모델에서 활동 모델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¹²⁾ 우선 그는 정보라는 것이 인식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믿음이나 정열에도 관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2016, 51). 만일 정보가 개인의 감정적인 요인에 까지 영향을 준다면 타르드가 설정한 여론의 기능과 공중은 의미가 달라진다. 그런데 이토 마모루는 타르드를 정면으로 겨냥하여 여론과 공중의 개념을 바꾸어 버린다.

나는데, 이토 마모루의 견해 따르면, 이러한 이행은 이성적 토론이나 네트워크에 의한 확산이 아니다.¹³⁾ 그것은 사건-공간으로부터 생기는 “사건 이행성(event-transitivity)”이다. 그는 축구경기를 시청하는 시청자의 비유를 들어 이 개념을 설명한다. 축구경기라는 사건이 텔레비전이라는 시청공간으로 이행하고 소비될 때 그것은 극적으로 변화한다(伊藤 守 2016, 173). 즉 시청자들은 열광하게 되고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극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텔레비전의 화면이나 음성이 만나 사건을 영상으로 전달하고, 시청에게는 감정과 행동을 촉발시킨다.¹⁴⁾

이러한 논리를 정치에 적용해 보자. 시민들이 현장에서건, 텔레비전을 통해서건, 인터넷을 통해서건, 하나의 사건을 접하면서 여러 사람이

13) 학자들은 대체로 현대정치에서 인터넷의 확산이 열린 공간,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언론매체에 대한 이성적 인지 모델에 근거할 때만 가능한 판단이다. 이항우(2012)가 보여준 바처럼 2008년 촛불집회가 확산된 계기도 인터넷을 통한 확장성 덕분이었다. 한편 콜린스는 연결망이 인간의 감정을 외부로 확장되는 계기라고 설명한다. 연결망이 있어야 생각과 감정이 사회전체로 전파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그는 지식인의 사회적 연결망(network)을 중요하게 설명한다(Collins 2009, 5장). 이렇게 놓고 보면 한국에서 언론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기능에 대해서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상관없이, 대체로 이성적 인지모델에 근거해 있다. 이러한 추세를 두고 볼 때 신진욱의 작업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언어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이를 1980년 광주항쟁에 적용해 보았다. 당시의 상황에서 저항세력의 언어와 군부세력의 언어가 각각 어떤 종류의 감정을 유발시켰고, 그것이 어떻게 분노에 기반하는 집합행동을 유발시켰는가를 경험적 분석방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신진욱 2007).

14) 이토 마모루 텍스트의 한 부분을 인용해 보자
 “그런데 한 정신의 다른 정신에 대한 원거리 작용이든 어떤 뇌 내의 음화를 다른 뇌의 감광관에 사진같이 복제하는 작용이든, 그 작용을 통해 무엇이 전달되고 무엇이 복제된다는 것일까? 타르드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정신적 경향의 에너지 혹은 심리적 갈망의 에너지 욕망이고, 또한 지적 파악의 에너지 혹은 심리적 수축의 에너지인 믿음이다. 이 두 에너지는 착란하고 집중하면서 연속된 흐름의 강도를 수반하여 전파된다. 이 욕망과 믿음이 여러 정신 사이에서 전파되고 모방될 때 생기는 것이 대립 또는 대립 이후의 적용(순용)이다. (-)정보과정에 상응하는 이러한 모방개념은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론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伊藤 守 2016, 52-53). 이것은 감정이 행위의 변용을 초래한다는 스피노자의 철학을 매스 미디어에 적용한 것이다. 이토 마모루는 스피노자와 들뢰즈(Deleuze)의 철학에서 잠재성, 변용 등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사건의 틀이 형성되면 부분적 주체들이 집단적 주체로 갑작스럽게 변형하는 상황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촛불집회가 아닐까! 물론 이러한 추론은 가설에 불과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개인적인 정동이 집합적 정동으로 발전하는 것은 경향성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건이행성이다.

그러나 사건이행성만으로는 계급논리를 온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계급이란 집합행동이 드러나는 순간에서 집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중심주의나 인지모형을 피하면서 계급간의 행동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전통적인 마르크시즘의 논리에서 보면 하층계급이 가장 진취적인 가치관과 저항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 한국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또 20대의 젊은 세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부당한 정치현실에 분노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이러한 이론과 현실의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모가 사회미학이나 부르디외가 제시한 취향이라는 개념을 과감하게 응용해 보고자 한다.¹⁵⁾ 노동자나 젊은 세대들이 가지는 취향이 자본과 권력에 포획 당했다면, 이들이 적극적으로 정치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하기 쉬워진다.¹⁶⁾

15) 하이모(Highmore 2015)는 미학이란 격렬한 감정(공포, 슬픔, 희망 등등)과 함께 작은 정동 및 정서(수치, 불안, 경멸, 놀람 등)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감각이라고 말한다(2015, 211). 즉 미학은 지각, 감각, 감정의 영역을 동시에 관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이모가 제안하는 미학은 전통적인 학문분류를 넘어선다. 그래서 그는 취향이라는 단어를 선호한다. 계급별로 각자가 선택하는 음식의 맛, 좋아하는 음악, 선호하는 그림들이 사회적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하이모에 따르면 이러한 계급별 취향의 차이가 계급별 에토스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이것이 계급간의 갈등을 촉발한다. 이때 에토스란 “적절한 행동거지의 분위기”, “세상을 향한 일련의 분명한 감정”(222) 등을 의미한다. 하이모는 여기서 멈춘다.

16) 사실 취향의 문제를 가장 심도 깊게 언급한 사람은 부르디외(Bourdieu)이다. 하이모는 부르디외의 이름을 단 한번 언급하면서 아비투스 개념을 사용하지만, 취향의 정치적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르디외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수정된 사회미학과 취향의 개념을 근거로 수치심과 분노의 변화과정을 설명해 보자.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일상세계가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포획당하고 있고, 개인의 욕망도 조절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감정 자체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수치심이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노동자와 대학생들은 생존경쟁이라는 국가이데올로기에 매몰되고 있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지각하고 성찰할 여유가 현저히 낮다. 또 몇몇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졌다고 해도 이것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의지로 표명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예절에 어긋난다는 유교식 교육, 남의 일에는 끼어들지 말라는 생활이데올로기,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발표하는 것이 사회분열을 조장한다는 국가이데올로기,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지금은 허리를 졸라매어야 한다는 발전 이데올로기 등이 감정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이데올로기와 감정이 연결된 관계를 정동이데올로기라고 부를 만 하다.¹⁷⁾

(홍성민 2012, 3장 참조). 그런데 나는 부르디외의 취향분석이 한국사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변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상층부의 차별화감각은 한국사회에서 큰 의미가 없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모든 계급이 소비취향을 통해서 자신의 탁월성을 드러내려는 천박함을 보이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면, 우리 사회는 차라리 아도르노가 『1차원적 인간』에서 보여주었던 시대 배경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즉 모든 계급의 소비취향이 자본주의 상품화 논리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가치관과 정치적 행동이 표출되는 방식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는 문화계국주의 관점에서 외국의 소비문화에 노출되는 정도와 정치의식의 관계, 혹은 문화자본(학력자본)과 정치의식의 관계를 포착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둘째는 아비투스 변화가능성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 부르디외는 계급적 취향이 사회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내부특성을 찾는데 열중했다. 그러나 한국 상황에서는 최소한 10년을 주기로 급격한 경제적 순환이 밀어닥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급적 취향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구조변화와 계급적 취향의 변화를 연결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 이 부분은 한국사회에서 사회변혁의 논리를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노동운동에 집중해 왔던 진보세력의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¹⁷⁾ 어쨌든 계급과 취향의 개념을 통해서 2차감정이 표출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한국정치를 이해하는데 매우 큰 과제이다. 특히 오늘날 한국의 유권자들이 정치에 무

4. 2016년 촛불혁명의 특성과 전망

2016년 가을 광화문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대된 촛불시위는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이명박 정권에서도 촛불이 있었고, 용산 참사에서처럼 시민들의 저항이 정권의 기반을 흔들었던 사건이 있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국적인 범위로 확산되지도 않았고, 시위자들의 숫자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2016년의 촛불을 그토록 활활 타오르도록 만들었을까? 우리는 위에서 완성하였던 감정정치학의 일반모델에 근거하여 2016년의 상황을 설명해 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서는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가 당선된 상황을 잠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의 딸이 다시 대통령이 되어 한국현대사에 등장한 일은 마치 1851년 루이 보나파르트가 나폴레옹의 후광을 업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과 비교될 만하다. 당시의 프랑스 사람들은 경제적 공황과 대외적 압박을 겪으면서 이념보다는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했다. 그런데 2012년 한국에서 치러진 대통령선거도 실업률의 증가와 북한의 위협등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동했다. 그러나

관심해 지고 젊은 세대들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두고, 취향의 정치학이라는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해 보인다. 왜냐하면 정치란 일정한 취향의 자원을 서로 다르게 배분하려는 취향의 대립구조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때 어떤 취향이 사회의 지배적인 것으로 등장하는가에 따라서 정치의 구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진보의 과제는 보수가 장악하고 있는 감정의 자원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감정의 분할”(Ranciere 2008)**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 한편, 80년대까지는 주로 지역감정이라는 용어가 한국정치를 설명할 때 자주 거론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증오, 분노 등과 같은 감정적 용어가 더 자주 사용된다(강준만 2013). 이것은 오늘날 한국정치가 이념대결 보다는 감정대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감정에 호소하여 득표하는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적을 만들기”, “분노의 대상 만들기” 등등은 한국정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감정의 조작이야말로 한국적 포퓰리즘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한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누군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 내 자신의 삶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렸던 유권자들의 감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의 카리스마와 경제발전의 추진력을 이어받은 영도자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간주역은 언론이었다. 18년간의 정치역정을 묘사하면서 보수언론은 박근혜를 구국의 결단을 이어온 지도자로 둔갑시켰으며, 선거 전략에서도 이를 철저하게 이용했다. 허상수(2013)는 2012년의 대선을 분석하면서 박근혜와 문재인이 대결은 보수진영과 유권자들이 벌인 감정의 정치라고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보수진영의 유권자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총탄에 잃은 불쌍한 딸로서 박근혜 후보를 인식했고, 이러한 감정이 일반대중으로 확산되어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반면에 문재인과 진보진영의 선거대책은 이념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성격을 탈피하지 못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선거 전략에만 국한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시대가 만들어 놓은 문화적 아비투스에 대해서 주목해야만 한다. 독재가 끝났지만 60년대와 70년대를 살아왔던 장년층들은 박정희 시대에 받았던 반공교육과 경제발전의 논리가 무의식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정책의 엄밀성과 추진가능성 보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박근혜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하층계급에게 더욱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시장판의 장사꾼으로부터 공장노동자에게 이르기까지 진보정당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민중계급들이 오히려 보수화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분석했던 아비투스의 역전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엘리야스나 푸코의 논리로 말하자면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반공논리는 육체에 각인되어 있어 정치체도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든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계급의 정체성이란 경제논리에서가 아니라 시대

의 분위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박정희 시대의 교육은 철저하게 병영식 군사교육이었고, 회사의 조직문화도 군대생활을 방불케 했다. 이러한 육체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반공이나 경제발전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안보논리는 진보진영의 후보를 빨갱이로 매도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노동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선거전략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혈세의 낭비로 비추어지게 만들었다.

또 젊은 층에서도 진보적일 것으로 기대했던 정치적 아비투스¹⁸⁾가 오히려 투표결과로 보면 보수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실업률의 증가로 인해서 생존경쟁에 내몰린 청년층들이 국가이데올로기에 경도되거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쉽게 매몰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을 위에서 살펴본 메스트로비치의 이론에 기대어 설명해 보자.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진입했던 소비사회는 젊은 층에게는 일상의 쾌락을 제동했고, 동시에 인생의 성공은 돈을 벌거나 출세하는 것이라는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오늘날 대학가에는 독서토론통아리 보다는 증권투자 동아리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희망이며 역사의 대행자라는 공적 의식을 유지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더구나 감정의 상업화 시대가 격해지면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거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아비투스¹⁸⁾가 오히려 어색한 젊은 층이 많아졌다. 오늘날 보수단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일베사이트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젊은 층들은 실업의 좌절과 조

¹⁸⁾ 17대선에서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은 다음과 같다. 20대 : 46.6% - 30대 : 55.1%이며 정당영을 지지한 비율은 20대가 19.1%이며, 30대는 17.2%이다. 한편, 18대선에서 20,30대 투표율은 다음과 같다. 20대 : 68.5%, 30대 : 70%. 한편 야당의 문제인에 대한 지지율은 20대가 65.8%이고, 30대는 66.5%이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직에서 밀려난 실망감을 타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감정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건전한 토론문화와 공익의식은 자리를 잡을 수 없으며, 격한 혐오감과 적대의 식만이 판을 치게 된다. 바로 이와 같은 세대별 정체성의 상황들이 2012년 박근혜 보수정권을 만들어 낸 시대적 아버투스이며 배후감정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다.¹⁹⁾

그렇지만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권의 출발부터 국민들이 소극적 수치심에서 적극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단초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했다. 예를 들어 선거 국면에서 박정희의 친일행적이 노골적으로 드러났고, 국정원의 댓글사건이 만천하에 밝혀짐으로써 정권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분위가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또 이를 배후에서 강조하는 감정들이 도처에서 존재하였다. 이른바 새로운 정치를 내세우며 등장한 안철수 후보의 존재 자체가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는 저항적 배후감정이라고 불러 볼 만하다.²⁰⁾ 더구나 정윤희 사건은 정권의 실세들이 국민의 행복은 안중에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격한 실망감을 가지게 만들었다.

19) 이동연은(2016)은 한국사회에서 감정의 정치를 타락시키는 주체를 네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아버지 연합이고, 둘째는 일베 회원이며, 셋째는 헬 조선 그룹, 넷째는 상층 부르주아다. 이들은 차례대로 애국심, 여성혐오, 청년세대의 분노, 부자들의 적개심이라는 감정을 배출한다. 한편, 이러한 감정을 정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념의 대립이 한국정치의 중심에 있었다면, 오늘날은 정동의 대립이 한국정치의 특징이 되었다. 이것이 감정정치학의 모델이 필요한 이유이다.

20) 강준만(2013)은 안철수의 등장이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는 희망의 감정에서 기인했다면, 안철수 죽이기는 보수진영이 만들어낸 감정정치의 전략이며, 이를 근거로 진보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편 안철수가 등장한 정치현실을 두고 정치의식이 높지 못한 유권자들을 조정하려는 정치인의 포퓰리즘이라고 분석하는 학자가 있다(조기숙 2016). 나는 이것이 차라리 유권자의 감정변화와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위의 두 학자는 모두 정치현상을 정당이나 정치인의 전략에 방점을 두고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여전히 국가주의나 제도주의에 벗어나지 못한 낡은 인식론이라고 여겨진다. 정치를 유권자의 감정변화에서 읽어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적어도 선거분석에서 사후적으로 통계처리를 하면서 국민들의 표심을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생동감이 있는 정치현장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다가 급기야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가장 심각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전개되는 모든 국면이 친정부적 배후감정을 반정부적 배후감정으로 돌아서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례와 민주적 상징성은 세월호 사건이 처리되는 지난 3년간 철저하게 무너졌다. 국민들에게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불신만을 심어 주게 되었다. 이것은 정권의 무능을 넘어서 최소한의 인도적 연민마저도 상실한 냉혹한 정권이라는 감정을 만들어 내었다. 뒤르케임의 이론에 기대어 말하면 민주적 의례와 절차가 완전히 몰락한 것이다. 3년간에 걸친 유가족의 진실규명투쟁과 이것을 권력의 힘으로 억압하려는 정권의 태도를 보면서 일반국민들은 이미 적극적 수치심에서 정권 타도의 분노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나는 평가한다.

한편 2016년 총선의 경우도 전형적인 감정정치학의 연속이었다. 예상과는 달리 선거결과에서 뜻밖의 반전이 나타난 이유는 친박, 진박, 비박 따위가 난무하는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수치심과 분노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상식을 넘어선 정치행동은 통계조사에서 잘 잡히지 않았다. 더구나 사건이행성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나는 4월 13일에 나타난 선거결과야말로 말로 바닥난 경제와 허물어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다. 여당의 대표가 공천장에서 고개를 숙이는 태도와 옥새를 들고 도망 다니는 장면에서 국민들의 감정은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도대체 정치가 무엇인가? 국민들은 저들의 관심사에 있거나 한 것인가? 모든 평론가의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것은 이미 국민의 감정이 분노의 단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²¹⁾

그리고 2016년 가을 우리는 드디어 최순실 사태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정적인 사건이행성을 촉발시킨 사건이다. 정윤희 사건, 세월호 사건까지만 해도 사건이행성의 문턱이 낮아 다시 정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배후감정과 대항자 의식을 돌이킬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순실 농단이 밝혀진 10월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행의 문턱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사건이행성의 구체적인 사례들은 물론 여러 가지이다. 백만촛불을 만들어 낸 가장 중요한 사건이행의 계기는 JTBC가 보도한 최순실 영상이었다. 그리고 탄핵을 가능하게 만든 사건이행의 계기는 국회청문회에 나온 재벌회장들과 대학교수, 전직 장관들의 거짓 증언이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했던 이행의 계기는 박근혜 자신의 언행일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보수정권 아래서는 한국사회를 개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다. 이제 반공시대에 익숙해지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상업성에 매도당한 세대와 계급이 자신의 아비투스²¹⁾를 순식간에 변화시키고 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게 되었다. 백만 촛불을 든 국민들은 모두 자신이 역사의 무게를 짊어진 대항자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상업적 취향을 넘어서 새로운 공적인 아비투스로 무장한 국민들이 부패에 물든 정권에 분노하고 새로운 정권을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2017년 5월의 대선에서는 진보적 아비투스와 개혁의 감정이 저극적으로 발휘되었다. 그리하여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2017년의 지방선거에서는 어떨까? 3년뒤 총선에서는? 향후 한국정치

21) 여기서 확인되는 중요한 사실은 80년대와 90년대에 치러진 선거와는 달리 2012 대선과 2016년 총선에서는 감정적인 요인이 크게 작동했고, 상대적으로 노동운동이나 진보진영의 이념적 이슈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대선에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한국진보정치가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진보정치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의 미래에서 어떤 감정의 정치학이 작동할까? 그 과정은 또 어떤 특성을 가질까? 과연 현재의 아비투스과 대항자 의식을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글에서 제한한 감정 정치학의 일반모델이 일정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5. 나가며

나는 이 글에서 2008년의 촛불집회의 특성을 토대로 감정정치학의 일반모델을 제시하면서, 이를 근거로 한국정치의 오늘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선 2008년 촛불집회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치운동의 국면변화를 예고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80년대와 현재의 달라진 정치형세를 비교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08년 촛불항쟁을 근거로 2016년 촛불혁명의 흐름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특징을 나는 감정구조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설명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한국정치는 전통적인 민주화 이행론을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합리적인 개인과 전략적 개인을 염두에 둔 인지모델이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정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물론 80년대 민주화 운동에도 감정적인 요인을 통해서 이해할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학계에서는 감정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한국정치를 이해하는데 감정구조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개인들의 정치적 판단과 행동이 경제적 계급을 넘어서, 소비생활이나 문화양식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정치를 바

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예를들어 전통적인 권력분류체계였던 국가권력-시민사회(정치사회)-개인의 행동이라는 도식에서 새로운 분석의 영역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기서 나는 시민사회와 개인행동의 중간영역에 감정의 영역, 혹은 취향의 영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어쩌면 이것이 콜린스가 지적했던 관심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Collins, 2001). 이러한 영역에서 개인들의 감정이 변화하는 과정(1차 감정과 2차 감정)을 면밀히 추적해야한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일컬어 주체화과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체화의 과정이 시대에 따라, 이슈에 따라, 다르게 변화한다. 그리고 주체화의 변화가 시민운동이나 정치선거의 결과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주체화 과정과 정치화 과정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향후 한국정치에서 대단히 중요한데, 나는 이것을 '문화정치학의 과제'라고 부르고자 한다.

문화정치학이 앞으로 수행할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의 변화와 취향의 변화, 취향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 감정의 변화와 정치적 선택의 변화를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사회와 북한사회의 감정변화를 비교분석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통일에 접근하는 방법은 모두 국가모델 혹은 경제모델 이었다면(이것을 제도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는 감정통합에 주목하는 문화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이주 외국인과 한국인의 감정변화를 비교하여 다문화시대를 대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은 글로벌 시대에 국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 문화접변과 감정통합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주제가 연구되어야 한다. 필자가 본문에서 제시한 감정정치학의 일반모델은 이와 같은 미래의 연구에 이론적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준만. 2013. 『증오상업주의』. 서울: 인물과 사상.
- 권지희. 2008. “여성, 새로운 정치주체로 떠오르다.” 권지희 외. 『촛불이 민주주의다』. 서울: 해피스토리. 87-113
- 김성일. 2017. “광장정치의 동학: 6월항쟁에서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까지.” 『문화과학』. 87(봄호). 146-168.
- 김호기. 2008. “촛불집회, 거리의 정치, 제도의 정치; 서울 광장에서 그람시와 하버마스를 다시 읽는다.”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참여연대강당 자료집. 75-88
- 박형신·정수남. 2015.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공포 감정의 거시사회학. 서울: 한길사.
- 신진욱. 2007. “사회운동의 연대 형성과 프레이밍에서 도덕감정의 역할: 5.18 광주항쟁 팸플릿에 대한 내용분석.” 『경제와 사회』. 73. 203-243.
- _____. 2008. “정치위기와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기: 2008년 촛불시위 이후 한국 민주주의 이중적 과제.” 『기억과 전망』. 제19호. 96-128.
- 엄묘섭. 2003. “탈근대 사회에서 감정과 집합행동.” 『철학논총』. 34. 351-387.
- _____. 2009. “감정의 시대; 문화와 집합행동.” 『문화와 사회』. 6. 7-51.
- 윤상철. 1997.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이행과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동연. 2016. “정동과 이데올로기.” 『문화과학』. 86(여름호). 24-58.
- 이향우. 2012. “네트워크 사회운동과 하향적 집합행동; 2008년 촛불시위.” 『경제와 사회』. 93. 244-274.
- 임희섭. 1999.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조기숙. 2016. 『포퓰리즘의 정치학』. 서울: 인간사랑.
- 정태석. 2015. “분산하는 사회운동과 접합의 정치; 사회적인 것'과 민주주의.” 『경제와 사회』. 105. 37-63.
- 조희연. 1998. 『한국의 국가. 민주주의, 정치변동』. 서울; 당대.
- 최장집. 2008. “촛불집회가 제기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 세교연구소 주최 긴

- 급시국대토론회, 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 2008년 6월 16일 참여연대 강당.
- 한완상. 1991. “한국 중간계층의 정치의식.” 『사상』 제11호, 194-228.
- 한상진. 1994. “사회개혁과 중민이론.” 『사상』. 22. 260-283.
- 홍성민. 2012. 『취향의 정치학』. 서울: 현암사.
- _____. 2016. “민주화 이행과 감정의 역할.” 『학생운동, 1980』. 건대항쟁계승사업회. 서울: 오월의 봄.
- 허상수. 2013. “시민정치와 노동정치의 위기 그리고 ‘감정의 정치.’” 『동향과 전망』. 제87호, 152-193.
- 바바렛, 잭, 박형신 역. 2007. 『감정의 거시사회학』. 서울: 일신사.
- 랜델, 콜린스, 진수미 역. 2009. 『사회적 삶의 에너지』. 서울: 한올아카데미.
- _____, 박형신 · 이진희 공역. 2012. 『열정적 정치; 감정과 사회운동』. 서울: 한올아카데미.
- _____, 김승욱 역. 2014. 『사회학 본능』. 서울: 알마.
- 엘리아스, 로베르트, 박미애 역. 1996. 『문명화 과정, 1』. 서울: 한길사.
- 그레그, 델리사, 시그워스, J. 그레고리, 역음. 최성희 · 김지영 · 박혜정 역. 2015. “뒷맛이 씹쓸한, 정동과 음식 그리고 사회미학.” 『정동이론』. 서울: 갈무리.
- 러 봉, 구스타브, 이상돈 역. 2005. 『군중심리』. 서울: 간디서원.
- 메스트로비치, 스테판, 박형신 역. 2014. 『탈감정사회』. 서울: 한올.
- 모이시, 도미니크, 유희경 역. 2010. 『감정의 지정학』. 서울: 랜덤하우스.
- 너스바움, 마사, 조계원 역. 2016. 『혐오와 수치심』. 서울: 민음사.
- 랑시에르, 자콥, 오윤성 역. 2008. 『감성의 분할』. 서울: 도서출판 b.
- 스피노자, D, 베네딕트, 황태연 역. 2013a. 『정치론』. 서울: 비홍.
- _____, 황태연 역. 2013b. 『신학정치론』. 서울: 비홍.
- 타르드, 가브리엘, 이상률 역. 2012. 『여론과 군중』. 서울: 지도리.
- 웨스턴, 드로우,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팀 역. 2007. 『감성의 정치학』. 뉴스위크 한국판.
- 이토 마모루, 김미정 역. 2016. 『정동의 힘』. 서울: 갈무리.

- Baldwin, J.D. 1998. "Habit, emotion, and Self-conscious action." *Sociological Perspectives*, January, 35-57.
- Dobry, M. 1992. *Sociologie des crises politiques*. PNSP.
- Goffman, E. 1967. *Interaction Ritual*. New York; Doubleday.
- Hochschild, A.R. 1983.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Illouz, E. 2008. *Saving the modern Soul; Therapy, Emotion, and the Culture of Self-Help*.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sper, J.M. 1998. "The Emotions of Protest; Affective and Reactive Emotions in and around social movements." *Sociological Forum* 13(3), 397-424.
- Kemper, A.D. 1978. *A social interactional theory of emotions*. New York; John Wiley.
- Melucci, A. 1996. *Challenging codes; Collective action in the information 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wman, W.R. Russell, eds. 2007. *The Affect effect*.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Donnell, G.A. & Schmitter, P.C. 199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 Scheff, T.T. 1990. *Microsociology : Discourse, Emotion, and Social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portal/main.do. 검색일 2017. 5. 19.

(2017년 4월 2일 접수, 5월 12일 심사완료, 게재확정 5월 22일)

Emotional politics and Candle Revolution

Hong Seong Min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candle revolution in 2016. For this purpose, the author intends to propose the concept of emotional structure, and to investigate its theoretical basis. I will utilize this concept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olitics. “Candle Revolution” could be compared between 2008 and 2016. I will approach 2008 as preliminary steps of political change in Korea, and will finally try to approach 2016 as the general model of emotional politics.

Key words; democratic transition, candle revolution, emotional structure, affect, cultural politics